

문화적 열정+자아성찰= '붓스터'



해외불교칼럼

미국의 명문대학 집단인 아이비리그에서 1950년대 후반 태동한 '비트 불교'는 마르틴 루터가 접한 종교개혁이 그러했듯 '총체적 사회개혁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그 후 이어져오는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는 냉엄한 신의 지배를 벗어나 포근한 인간 중심의 삶을 되찾자는 정신문화적 신조였다. 붓다세존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즈음 가혹한 신권통치와 무자비한 계급질서를 혁신하려던 계몽사상가자 인본주의의 선구자였다.

현대 서구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통해 붓다세존의 '가없이 너른 사랑'을 새삼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듯, 르네상스(Renaissance)란 본디 '다시 태어남'을 뜻하며 때론 '전성기'로도 함께 쓰인다.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에 즈음하여 교육수준과 경제력, 사회적 지명도가 평균치를 웃돌면서도 인종차별과 종교편견 등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하던 특히 유태계(Jewish) 미국인 중 불자(Buddhist)의 수가 여인 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자 그들을 통칭하는 주부(Jew-Bu, JUBU)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주부 가운데 영화배우로는 스티븐 시걸과 올랜도 블룸 거사, 골디 혼 보살 등이 있고 대니얼 칼먼 거사와 같은 심리학자 겸 유명작가, 또 '미국내관람선협회'의 공동창시자인 잭 콘윈드 및 조셀 골드스타인 선사와 사촌 잭조버그 보살 등도 있다. 또 영화 '리틀 붓다'를 만든 이탈리아 출신의 베르톨루치 감독 등은 가톨릭배경이지만 새로이 불연을 맺어 부톨릭(Buholio)이라 하며, 감리교신자면서 불법을 따르는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은 자칭 '감리교적 불교도'다.

그럼 이전 더욱 최근에 나타난 붓스터(Buddster)라는 신조어를 살펴보자. 붓스터란 얼핏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은 불자(Buddhis)



미국에서 최근 만들어진 '붓스터'란 말은 불자와 힙스터가 합쳐진 것이다. 사진은 미국 비보이들의 공연 장면.

와 힙스터(hipster)가 합쳐진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청소년 힙합불자'쯤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의 '비 보이'들의 폭발적인 열정과 불교적 자아성찰의 합성, 또는 동(動)과 정(靜)의 어우름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붓스터 현상은 리키 마틴, 애덤 요크, 마이클 스타입 거사, 엘라니스 모리세트 보살 등 할리우드 불자 가수들이 미국 청소년층을 상대로 전개하는 대 흥법홍행(Grand Dharma-Spread Show)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즉, 불자 매가 스타들이 청소년 힙합 밴드와 상조연대감을 통해 안정된 정서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그들에게 술, 마약, 담배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종 청소년 범죄의 유혹을 떨쳐도록 격려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붓스터 현상은 비트, 힌피와 유사한 문화사회적 흐름이며, 하버드 대학 부설 '다원문화공존기획'의 종교적 다양성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붓스터는 대개 이렇게 생겨난다. 먼저 할리우드의 록 스타들이 불교적 주제가 함축된 자유분방한 음악과 유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동서퓨전문화는 최신 동영상시스템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에 미국 전역에 전달된다. 그 리듬과 유희를 보

내준 할리우드의 불교 스타들의 삶을 알고자 좀 더 다가간 청소년들은 그들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나미로 생지옥이 되어버린 동남아 지역을 수차례 찾아가고 구호기금 모금, 자선공연 등을 펼치고 조립식 주택들도 회사하는 가수 리키 마틴, 그를 보면서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자비의 눈물을 함께 나눈다. 또 마이클 스타입 등 할리우드 도반들이 재난지역을 위로방문하고 거액의 재화자금 등을 아낌없이 회사하는 걸 보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계기를 얻는다. 흥청망청 호사스럽게만 여겼던 할리우드 도반들의 내면세계를 통해 그 진정한 생활태도와 따스한 인간애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느낀다.

이윽고 붓스터들은 할리우드 도반들이 제공하는 대중예술을 즐기는 가운데 불법이 가르치는 '자아해방',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익힌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감싸 안는 참된 자유인(自由人), 곧 이상적인 불자가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 붓스터는 잿빛 도심의 분수대에 이제 막 피어나는 진홍빛 연꽃송이와도 같다.

성유 스님
출처: Jubu Heroes, 하버드, 컬럼비아대학 학보, Belief Net, 기타

FWBO 웹사이트 러시아어 추가

국제전법기구인 서방불교우의회(FWBO)는 주로 서부유럽의 언어들로 제작되어온 자체 웹사이트에 동부유럽의 폴란드어에 이어 러시아어를 추가한다고 3월 30일 발표했다.

최근까지 영어, 터치어, 핀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로 불교 기초와 참선수행 지도 등 적극적인 사이버전

법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 불교회합 및 세미나를 개최해온 동 기구는 급증하는 러시아의 불자와 현실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출처: BCTV, ABN

佛 아미타 불교협회 7월 하계정진

프랑스 아미타 불교협회는 동안거를 마치고 5월 중순부터 자체 시설개보수, 진입로정비, 그리

고 입간 독거수행도굴 등을 설치,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계정진세미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미비드야와 프라사다 선사가 3일 동안 지도하게 될 '7월 안거수행'에는 12개 정규강좌를 비롯해 정토수련법회, 교도소 재소자 대상 불교교화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전문교육도 포함되며, 입간 자유토론회와 다채로운 국제전법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출처: FAB

“참선할 땐, 생각을 멈춰라”

월드 스타 불심도



필잭슨 ⑥

농구코트의 대선사란 별명을 지닌 필잭슨의 본업은 프로 스포츠다. 하지만 그는 선수지도뿐만 아니라 팀의 각종 기획수립, 또 임원진과 후보 선수들의 운영도 직접 코칭을 한다. 이를테면 그는 북도 치고 창검도 휘두르는 참모형 야전 사령관이다. 그를 지켜보자면 현대 경영실무 가운데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란 게 떠오른다.

이는 제품의 품질관리는 물론 제품을 창출하는 인적자원관리까지 포함한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와 다르다. 이는 조직 관리는 물론 조직구성원의 자기관리, 대인관계관리, 심지어 언론 및 경쟁상대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포괄개념이다. 필잭슨 특유의 인적자원관리는 불교철학에서 응용한 신 개념의 원용, 즉 '나'를 뛰어넘는 '우리'를 바탕으로 한다.

"팀의 일체감 조성은 리더의 자기 확신에서 출발한다. 나는 팀을 이끄는 코치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또한 나는 나의 생각을 파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늘 그렇듯, 그는 여기서도 팀 리더인 나 자신의 책무부터 강조한다. 과도한 개인주의와 개별분업화의 틀에 갇힌 서구인들은 '나'부터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사교를 필잭슨도반처럼 불교를 통해 배운다. 이어 그는 '우리', 즉 자신의 동료인 선수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우리가 농구 코트에서 거두는 승리가 우리가 만드는 생산제품이다. 우리 모든 선수, 특히 주전 멤버들은 정예 세일즈맨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곧 상구보리에 이은 현실적인 하화중생(下化衆生)이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에 미국의 여러 캠퍼스에서 필잭슨을 불교적 경영(Buddhis Management)의 대표적 연구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선수들이 할 일이 뭘지 가르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묻게 하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다.

"나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 스포츠를 왜 하나? 그리고 그 화두마저 리버랜드를 친다. '명예와 돈, 그리고 승리의 쾌감을 빼고 나면 프로스포츠란 무엇인가?' 이어 노련한 승부사답게 선수들의 공격인자를 톡 건드린다.

"게임은 승리보다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믿는 신사숙녀들이 아직도 계실까?"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을 점차 일심동체의 전사들로 만들어간다. 시카고 불즈 팀이 NBA의 한 시즌에서 70승이라는 경이적인 신기록을 이뤘다. 그는 농구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불린다. 명장 밑에 줄게 없다고 했던 시카고 불즈의 간판스타이자 공중 곡예의 신기를 보여준 마이클 조던, 스키터 피펜, 데니스 로드먼 등이 바로 그의 휘하를 스쳐간 역전의 전사들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육지거리, 주먹질, 발길질 따위를 하는 기본합량 미달의 얼치기 코치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어려운 게임에서 이긴 경우, 그는 선수들을 무섭게 다그친다. 기자가 묻는다. "오늘 게임에서 최강의 적수를 처리했으니 이제 한숨 돌리시겠어요?" 그의 대답이다. "승리의 맛은 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단맛이 다음 게임을 조금도 느긋하게 해주진 않아요." 이 말 역시 인터

'나' 아닌 '우리' 바탕으로 인적관리 가르치기 보단 화두 제시하는 경영

뷰에 응하는 척하며 실은 자기 선수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즉, 최적의 긴장감(optimal tension)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란 일종의 필요악이다.

장난감 글라이더의 고무줄처럼 너무 조이면 끊어져버리고 또 너무 느슨하면 글라이더가 뜨질 못한다. 개인감정처럼 조직운영에서도 스트레스관리는 필수다. 그는 선수라는 '물'을 다룬다. 상황에 따라 팔팔 끓어오르기도 할 수 있고 얼음처럼 팽공 굳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자신과 선수들이 함께 수행하는 참선을 통해 명경지수처럼 미풍도 하지 않는 무뎀무상의 삼매경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이는 글라이더를 갖고 놀지 않을 땐 고무줄을 완전히 풀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참선은 완벽한 휴식이다. 참선으로 평가를 이루려 말라. 그저 생각을 멈춰라." 역시 대선사다운 간단명료한 수행지침이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그의 아련한 능청이다. "스포츠란 오르가즘을 쫓아가는 것, 즉 인간의 본능이죠. 멋지게 끝내주고 싶어요? 하하,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세요." 성유 스님

A3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e are not supposed to talk, are we?

우린 절대로 말하면 안돼요. 안 그래요?



Four monks decided to meditate without speaking for half a month. By nightfall on the first day, the candle began to flicker and then went out. The first monk murmured, "Oh, no! The candle is out." The second monk gumbled, "We are not supposed to talk, are we?" The third monk scolded them, "Why have you two already broken the silence?" The fourth monk joyfully giggled, "Ha! I'm the only one who didn't speak."

스님 넷이 보름 동안 묵언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 첫날밤이 될 무렵, 커튼 촛불이 깜박거리다 꺼져버렸다. 그러자 첫 번째 스님이 중얼거렸다. "오매, 촛불이 꺼져버렸네!"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스님이 투덜댔다. "우리 절대로 말하면 안돼요. 안 그러유?" 곧이어 세 번째 스님이 꾸짖었다. "두 스님들께서 어이하여 벌써 묵언정진을 작파하시유?" 그러자 네 번째 스님이 신나게 킁킁했다. "히히, 나만 암말 안했대카!"

번안: 성유 스님 / 그림: 이태수

소원성취 원불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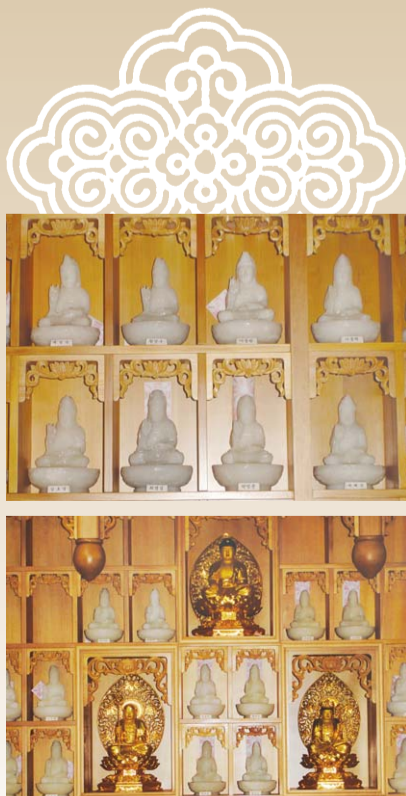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보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메: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위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터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옥천대장사 예철 스님
현대불교 충청(대전충남충북)지사장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300GB 대용량 영상기록

DVR 모니터 카메라 4대 250만원 (설치비용 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 알려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의도시스템

성만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